**잠2720 Note**

**◆Cross check : 잠3016 합0205**

잠2720. 지옥 (쉐올: 스올, 장신구와 동거인들을 함께 매장함, 죽은 자의 세계,무덤,지옥,구덩이/헬라어 하데스)과 파멸(아바돈:멸망함,하데스,멸망)은 결코 충분히 채워지지 (사바:만족시키다,충분히 만족시키다,충분하게 하다,충분히 채우다,충분하다,가득차다,물리게 하다,만족하다,자족하다,싫증나다) 않느니라. 그와 같이 사람의 눈들은 결코 충족되지 않느니라.

잠3015. 말거머리(알루카:거머리,말거머리)는 "주시오, 주시오"라고 외치는 두 딸들을 가지고 있느니라, 결코 충족되지 않는 세가지 것들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네가지 것들은 "이제 충분하니라"고 말하지 않노니,

잠3016. 무덤과, 잉태치 못하는 태(胎)와, 물로써 채워지지 않는 땅과, 그리고 "이제 충분하니라"고 말하지 않는 불(火)이니라.

합0205.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포도주에 의해 범법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집에서 있지[나바:(집에서와 같이)쉬다,(칭찬하는 말로)축하하다,집에 있다,거주지를 준비하다] 않으며, 그는 그의 욕망들을 지옥과 같이 넓히느니라(라하브:넓히다,넓게하다,공간을 만들다,넓게 만들다), 그리고 사망과 같아서, 충족될 수 없느니라, 대신에 그에게 모든 민족(고이: 이방 나라,이방,동물들의 떼,메뚜기들의 날음,이교도,이방인,나라,백성)들을 모으며, 또 그에게 모든 백성(암:백성,이스라엘의 지파,무리,수행원들,떼,사람들,민족,백성)을 쌓아 올리느니라.

계0911.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들 위에 한 왕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는 바닥이 없는 구멍의 천사이며,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아밧돈:파괴하는 천사,무저갱의 천사,아밧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그의 이름이 "아폴리온(아폴뤼온:파괴자,사탄,아볼루온)"이니라.